『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Siku-quanshu Jianming-mulu*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 론
2.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2.1 표제표시
 2.2 권수표시
 2.3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2.4 저자명표시
 2.5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표시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3. 한국의 조선시대 해제목록과의 목록기술방식 비교
4.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 논문은 청(淸) 건륭연간(乾隆年間)에 기윤(紀昀) 등이 편찬한 해제목록인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축약본으로 편찬된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사항을 한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인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 등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은 상당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의 조선시대 해제목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要語: 청(淸), 기윤(紀昀), 사고전서총목, 사고전서간명목록, 목록기술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3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www.kci.go.kr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Siku-quanshu Jianming-mulu*. which is a short version of Siku- quanshu zongmu -tiyao printed by Ji-yun(紀昀), Kangxi reign, Qi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in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written age, name of author,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and noteworthy examples. Then the study compared the aforementioned aspects with those in Gyujang-chongmok, Nupan-go, and Hong-ssi Dokseorok. The significance of *Siku-quanshu Jianming-mulu* was found in the fact that it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considerably unified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and provided strong influence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Joseon Dynasty, Korea.

Key words: Bibliographical description, Qing, Ji-yun, Siku-quanshu, *Siku-quanshu Jianming-mulu*

www.kci.go.kr

1. 서 론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어명으로 당시 현존한 고금의 문헌을 수집하고 필사하여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정리한 일대 총서(叢書)이다. 이 거대 사업은 1772년(건륭 37)에 시작하여 1782년(건륭 47)에 완성되었는데, 문연각(文淵閣)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사고전서」가 바로 그 최초의 사본이다. 「사고전서」의 편찬진은 그 후 1787년(건륭 52)까지 6질을 더 필사하여 이를 문소각(文溯閣), 문원각(文源閣), 문진각(文津閣), 문종각(文宗閣), 문회각(文匯閣), 문란각(文瀾閣) 등 6개의 각(閣)에 각각 한 부씩 수장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당시 기윤(紀昀)을 총찬관(總纂官)으로 임대춘(任大椿), 소진함(邵晉涵), 주영년(周永年) 등 당대의 학자 360여명이 그 편찬에 동원되었다.[1)]

이 「사고전서」의 편찬과정에서 거기에 수록된 도서에 대해 그의 서지와 내용의 해제를 기술했는데 이를 모아서 편찬한 것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200권이다. 이 「사고전서총목제요」는 1773년(건륭38)부터 편수(編修)하기 시작하여 1781년(건륭46)에 초고(初稿)를 완성하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다음 1789년(건륭 54)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무영전(武英殿)에서 판각하였다.[2)]

그러나 이 「사고전서총목제요」가 복잡하고 열람하기 불편하므로 건륭제는 1774년(건륭 39)에 보다 간단한 목록을 만들라는 명을 내려서 1782년(건륭 47)에 완성한 것이 바로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 20권이다.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의 판본은 문연각(文淵閣) 필사본 계통, 항주(抗州) 조회옥(趙懷玉) 판각본 계통, 무영전(武英殿) 판각본 계통 등 3종의 판본으로 구분하는데,[3)] 여기에서는 문연각(文淵閣) 원초본(原鈔本) 「사고전서간명목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4)]

---

1) 鄭石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32-233.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의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75(2011. 9), 60-61.

2)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 淺論, 「重慶社會科學」 5(2005), 57.
<http://baike.baidu.com>.

3) 胡露, 周錄祥(2005), 57-58.

4) 永瑢等 撰, 「四庫全書簡明目錄」, 文淵閣原鈔本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2[1983]).

www.kci.go.kr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은 수록 서적도 많고 해제도 간명하고 휴대도 편리하여 당시의 학자들은 거의 한 권씩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마조군(司馬朝軍)은 "옛날 사람들은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학술적인 가치를 많이 인정해 주었지만 「사고전서간명목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고전서간명목록」은 중국 목록학의 보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5]

우리 학계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고전서」와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6] 이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에 대한

5) 胡露, 周錄祥(2005), 57-58.
司馬朝軍, 「四庫全書總目 硏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123 재인용.

6) 홍정희, "筆寫本 永樂大典과 四庫全書의 書誌的 硏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卞麟錫, "사고전서의 수량적 고찰," 「史叢」 30(1986. 11), 261-269.
鄭石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31-260.
이제우, "淸代 「四庫全書總目」을 통해 본 '晩明小品'의 현상과 평가," 「中國學硏究」 26(2003. 12), 251-273.
박영순, "「四庫全書總目」 詩文評類提要의 문학 비평적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32(2005. 6), 427-445.
Guy, R. Kent 저, 양휘웅 역,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趙永來, "「사고전서총목」 사부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사지목록의 사부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4(2009. 12), 491-527.
金 鎬,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과 그 文化意義," 「中國文學硏究」 40(2010. 6), 201-223.
김동민,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 『四庫提要』 「經部」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67(2011. 8), 221-250.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 儒家類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67(2011. 8), 251-282.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 「東洋哲學」 35(2011. 7), 99-126.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의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75(2011. 9), 59-86.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2012. 12), 111-153.
趙永來,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正史의 『地理志』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의 地理類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2(2012. 9), 155-192.
한미경,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2012. 12), 239-269.
당윤희, "청대(淸代) 사고관신(四庫館臣)의 유학(儒學) 사상 고찰: 『사고전서총목(四庫全

www.kci.go.kr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사고전서간명목록』에서는 수록된 저작에 대해 체계적인 목록기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전서간명목록』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구하고, 한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과 비교하면서, 이 『사고전서간명목록』이 한국목록학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이하 『간명목록』이라 함)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左傳屬事 二十卷
明傅遜撰 仿袁樞通鑑紀事本末之體變 傳文編年爲屬事 各檃括大義而論之 於杜註之未安者 多所更定 凡傳文之有乖世者 亦多所糾正

謹按 章沖左傳始末之類 以無關經旨皆入史鈔類中 惟此書雖以屬事爲名 而考定註文 叅酌傳義 非但排纂事實者比 故仍入之於經部

위의 예를 분석하면, '좌전속사(左傳屬事)'는 표제를, '이십권(二十卷)'은 권수를, '명(明)'은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를, '부손(傅遜)'은 저자명을, '찬(撰)'은 저작역할어를 '仿袁樞通鑑紀事本末之體變 … 亦多所糾正'은 해제를, '謹按' 이하는 안어(案語)를 각각 가리킨다. 즉, 『간명목록』의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체로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안어는 필요할 때만 기술하여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와

書總目)』의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50(2012. 10), 401-440.

www.kci.go.kr

안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의 목록기술방식과 비교하여, 이 「간명목록」이 조선시대 해제목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간명목록」에서는 표제표시에 있어서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제(御製)', '어정(御定)', '어찬(御纂)', '흠정(欽定)' 등의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표제표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御製律呂正義後編 一百二十卷 乾隆十一年皇上御撰
御定康熙字典 四十二卷 康熙五十五年大學士張玉書等奉勅撰
御纂周易折中 二十二卷 康熙五十四年大學士李光地等奉勅撰
欽定儀禮義疏 四十八卷 乾隆十三年奉勅撰
周易擧正 三卷 舊本題唐郭京撰
春秋微旨 三卷 唐陸淳撰

2.2 권수표시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册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左傳杜解補正 三卷
戰國策註 三十三卷

권수표시는 완질(完帙)의 권수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완질(完帙)이 아닌 경우 잔존 서적의 권수를 표시하였으며, 해제에서 완질의 권수와 빠진 권수를 함께

www.kci.go.kr

표시하였다.

예:
四書集義精要 二十八卷 元劉因編 原本三十卷 今佚二卷
乾道臨安志 三卷 宋周淙撰 原本十五卷 今惟存首三卷
讀四書叢說 四卷 元許謙撰 原本二十卷 今惟存大學 一卷 孟子 二卷 中庸佚
其半 僅存一卷 論語則已全佚

2.3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는, 원래는 저자의 생몰시기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예:
讀易詳說 十卷 宋李光撰
周禮註疏 四十二卷 漢鄭元[7](실은 玄)撰 唐賈公彥疏
左傳杜林合註 五十卷 明王道焜 趙如源同編

외국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경우 저자명 앞에 '서양(西洋)'이란 말을 관기한 경우도 있고,

예:
職方外紀 五卷 明西洋艾儒略撰
泰西水法 六卷 明西洋熊三拔撰

『간명목록』이 편찬된 시기인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국조(國朝)'라고 표시하였고,

7) '정현(鄭玄)'을 '정원(鄭元)'이라고 필사한 것은 청(淸) 강희연간(康熙年間)에 '현(玄)'자를 피휘(避諱)하여 '원(元)'자로 기록한 것임. 따라서 본문의 예 가운데 '현(玄)'자를 피휘하여 '원(元)'자로 쓴 것은 모두 '현(玄)'으로 고쳐서 기술하였음.

www.kci.go.kr

예:
推易始末 四卷 國朝毛奇齡撰
九經誤字 一卷 國朝顧炎武撰
分甘餘話 四卷 國朝王士禛撰

청나라 때 간행된 명찬서의 경우 역조(歷朝)를 생략하고 연호(年號)를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御纂春秋直解 十五卷 乾隆二十三年 大學士傅恒等奉勅撰

저작의 편찬시대가 불분명한 경우 시대미상(時代未詳), 부저시대(不著時代)라고 하여 아예 그 시대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예:
夏侯陽算經 三卷 舊本題夏侯陽撰 時代未詳 唐志載有甄鸞註 則北周以前人也
張邱建算經 三卷 舊本題張邱建撰 不著時代

2.4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어제서(御製書), 어정서(御定書), 명찬서(命撰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작에 대해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論語稽求篇 四卷 國朝毛奇齡撰
宋史紀事本末 二十六卷 明陳邦瞻撰

「간명목록」에서는 위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1)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정(御定)', '어주(御註)', '친제(親製)' 등으로 표시하였다.

예:
御註孝經 一卷 順治十三年 世祖章皇帝御撰
庭訓格言 一卷 雍正八年 世宗憲皇帝御纂
御定內則衍義 十六卷 順治十三年 世祖章皇帝御定
孝經正義 三卷 唐元宗明皇帝御註 宋邢昺疏
聖諭廣訓 一卷 聖祖仁皇帝親製

2) 명찬서(命撰書)는 대개 '연호+연차+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예:
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太平御覽 一千卷 宋太平興國二年李昉等奉勅撰
歷代名臣奏議 三百五十卷 明永樂十四年黃淮楊士奇等奉勅編

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欽定詩義折中 二十卷 乾隆二十年大學士傅恒等奉勅撰
御覽經史講義 三十一卷 乾隆十四年大學士蔣溥等奉勅編

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欽定春秋傳說彙纂 三十八卷 康熙三十八年奉勅撰
欽定明臣奏議 二十卷 乾隆四十六年奉勅編
硃批諭旨 三百六十卷 雍正十年奉勅校刊

www.kci.go.kr

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四書大全 三十六卷 明永樂中翰林學士胡廣等奉勅撰
宣德鼎彝譜 八卷 明宣德中禮部尙書呂震等奉勅撰

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聖濟總錄纂要 二十六卷 宋政和中奉勅撰 1

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易經通註 八卷 國朝大學士傅以漸等奉勅撰
御定盤山志 二十一卷 國朝大學士蔣溥等奉勅撰

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大唐開元禮 一百五十卷 唐蕭嵩等奉勅撰
崇文總目 十二卷 宋王堯臣等奉勅撰

3) 황후의 경우는 '역조명+시호+황후(歷朝名+謚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예:
內訓 一卷 明仁孝文皇后撰 或以爲高皇后撰者 誤也

4)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
開元釋敎錄 二十卷 唐釋智昇撰
筍譜 一卷 宋釋贊寧撰 或作惠崇者誤也

5)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周易口義 十二卷 宋倪天隱述其師胡瑗之說
溫氏母訓 一卷 明溫璜述其母陸氏之訓也
四書賸言 四卷 補 二卷 國朝毛奇齡雜論四書之語 前四卷 其門人盛唐王錫所編
補二卷 其子遠宗所編
大金德運圖說 一卷 金貞祐二年尙書省集議之案牘也
上蔡語錄 三卷 宋曾恬胡安國所錄謝良佐語 朱子又爲刪定之

www.kci.go.kr

6) 저자명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가 있고, 세간에 알려진 저자명의 오류를 정정해 준 경우가 있다.

예:
禮部志稿 一百十卷 明泰昌元年官撰 實上海生員俞汝楫所修也
楞庵類稿 二卷 明鄭潛撰 或作元人者誤也
聲畫集 八卷 宋孫紹遠編 或以爲劉摯者誤也

7) 저자의 성명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세간에서 전해지는 저자명을 먼저 부기하고, 그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예:
博異記 一卷 舊本題唐谷神子撰 或云馮廓 或云鄭還古 均無確證也
衛濟寶書 二卷 題東軒居士撰 不著名氏
桂苑叢談 一卷 舊本題馮翊子子休撰 不著姓名
文子 二卷 文子 不知其名字

8)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 부저편집자명씨(不著編輯者名氏), 부저편록자명씨(不著編錄者名氏), 막지수작(莫知誰作), 찬인명씨무고(撰人名氏無考)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는데,

예:
原本廣韻 五卷 不著撰人名氏
太醫局程文 九卷 不著編輯者名氏
毛詩集解 四十二卷 不著編錄者名氏
周髀算經 二卷 音義 一卷 是書爲相傳古本 莫知誰作
晏子春秋 八卷 撰人名氏無考 舊題晏嬰撰者誤也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라도,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저자의 성명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자의 성(姓)이나 생존시기(生存時期)를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研山齋雜記 四卷 不著撰人名氏 疑爲孫承澤之孫炯所作也
愛日齋叢鈔 五卷 不著撰人名字 但據說郛所載 知其姓葉 據書中咸淳年號 知爲宋末人耳

www.kci.go.kr

2.5 저작역할어(著作役割語)표시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주(註)’, ‘산정(刪定)’, ‘보주(補注)’, ‘감수(監修)’, ‘소편(所編)’, ‘교정(校定)’, ‘전주(箋註)’, ‘증수(增修)’, ‘평점(評點)’, ‘교보(校補)’, ‘속증(續增)’, ‘속성지(續成之)’, ‘집주(集註)’, ‘산보(刪補)’, ‘속(續)’, ‘설(說)’, ‘소(疏)’, ‘보(補)’, ‘증보(增補)’, ‘증주(增注)’, ‘중증(重增)’, ‘주(注)’, ‘역(譯)’, ‘전(傳)’, ‘전(箋)’, ‘어찬(御撰)’, ‘소기(所記)’, ‘편차지(編次之)’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예:
左傳杜解補正 三卷 國朝顧炎武撰
別本周易本義 四卷 明成矩編
周易註 十卷 魏王弼註 其繫詞以下則韓康伯註也
周易義海撮要 十二卷 宋李衡刪定
三命指迷賦 一卷 舊本題宋岳珂補注
畿輔通志 一百二十卷 國朝直隸總督李衛等監修
欽定重訂契丹國志 二十七卷 宋葉隆禮撰 乃奉詔所編
魏書 一百十四卷 北齊魏收撰 宋劉恕等校定
徐孝穆集箋註 六卷 陳徐陵撰 國朝吳兆宜箋註
增修校正押韻釋疑 五卷 宋歐陽德隆撰 郭守正增修
班馬異同 三十五卷 宋倪思撰 劉辰翁評點
金匱鉤玄 三卷 元朱震亨撰 明戴原禮校補
玉機微義 五十卷 明徐用誠撰 劉純續增
周易衍義 十六卷 元胡震撰 其子光大續成之
九家集注杜詩 三十六卷 唐杜甫撰 宋郭知達集註
棠陰比事 一卷 附錄 一卷 宋桂萬榮撰 明吳訥刪補
儀禮經傳通解 三十七卷 續二十九卷 宋朱熹撰 其門人黃榦續
古文孝經指解 一卷 宋司馬光撰 范祖禹說
春秋左傳正義 六十卷 周左丘明撰 晉杜預註 唐孔穎達疏
古今同姓名錄 二卷 梁孝元皇帝撰 唐陸善經續 元葉森補
名醫類案 十二卷 明江瓘編 其子應宿增補
增修互註禮部韻畧 五卷 宋毛晃增注 其子居正重增
爾雅註疏 十一卷 晉郭璞注 宋邢昺疏
孟子正義 十四卷 宋[실은 漢]趙岐注 其疏舊題宋孫奭撰
大唐西域記 十二卷 唐釋玄奘譯 辨機撰
尙書正義 二十卷 舊本題漢孔安國傳 唐孔穎達疏
毛詩正義 四十卷 漢毛亨傳 鄭玄箋 唐孔穎達疏
唐六典 三十卷 唐玄宗明皇帝御撰 李林甫奉勅註
二程遺書 二十五卷 附錄 一卷 程子門人所記 而朱子編次之

www.kci.go.kr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간명목록』 목록기술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으며,

예:
同 + 著作役割語
忠貞錄 三卷 附錄 一卷 明 李維樾 林增志同編
近思錄 十四卷 宋 朱熹 呂祖謙同撰 或惟題朱子者 謬也

等 + 著作役割語
宋史 四百九十六卷 元 托克托等撰
御製評鑑闡要 十二卷 乾隆三十六年 大學士劉統勳等錄
江南通志 二百卷 國朝兩江總督趙宏恩等監修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동찬(同撰)이라고 표시하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으며,

예:
新法算書 一百卷 明徐光啓等與西洋龍華民等同撰

3) 역할이 다른 저자표시 사이에 '이(而)'자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二程遺書 二十五卷 附錄一卷 程子門人所記而朱子編次之

www.kci.go.kr

2.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春秋辨疑 四卷 宋蕭楚撰 其門人胡銓等附註
春秋左傳正義 六十卷 周左邱明撰 晉杜預註 唐孔穎達疏
毛詩正義 四十卷 漢毛亨傳 鄭玄箋 唐孔穎達疏
古今同姓名錄 二卷 梁孝元皇帝撰 唐陸善經續 元葉森補

2.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나온 경우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하고 해제한 경우가 있으며, 그 서적을 각각 해제한 경우도 있다.

예:
동일저자의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하고 해제한 경우:
子部 醫家類
箴膏肓 一卷 起廢疾 一卷 發墨守 一卷 漢鄭玄撰

經部 四書類
中庸指歸 一卷 中庸分章 一卷 大學發微 一卷 大學本旨 一卷 宋黎立武撰

동일저자의 저작을 각각 해제한 경우:
經部 易類
推易始末 四卷 國朝毛奇齡撰
春秋占筮書 三卷 國朝毛奇齡撰
易小帖 五卷 國朝毛奇齡說易之說語

www.kci.go.kr

2.6.4 특정서적의 후집이나 속집 또는 별집이 나온 경우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이나 속집 또는 별집 또는 보유적 성격을 띤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해제를 한 다음에 그 서적의 내용 별로 편저자 표시를 한 경우가 있다.

예:
名臣言行錄前集 十卷 後集 十四卷 續集 八卷 別集 二十六卷 外集 十七卷 前集後集 宋朱熹撰 續集別集外集 李幼武所補
古今源流至論前集 十卷 後集 十卷 續集 十卷 別集 十卷 前集後集續集 宋林駉撰 別集 宋黃履翁撰
吳越備史 四卷 補遺 一卷 宋錢儼撰 或題范林者 儼托名也 其補遺 一卷 則不知爲誰作

2.6.5 서적의 원본이 불분명한 경우

서적의 원본이 불분명한 경우 원본구일(原本久佚)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원본잔궐(原本殘闕), 구본산일(舊本散佚), 원본와천(原本訛舛) 원본와탈(原本訛脫), 간본찬란실진(刊本竄亂失眞) 이란 말을 쓰고, 대본이 된 서적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예:
尙書講義 二十卷 宋史浩撰 原本久佚 今從永樂大典錄出
夏氏尙書詳解 二十六卷 宋夏僎撰 原本殘闕 今從永樂大典 補完
讀易詳說 十卷 宋李光撰 舊本散佚 今從永樂大典錄出
袁氏世範 三卷 宋袁采撰 原本訛舛 今以永樂大典校正
農書 二十二卷 元王楨撰 原本訛脫 今以永樂大典校正
知言 六卷 附錄 一卷 宋胡宏撰 刊本竄亂失眞 今從永樂大典校定

www.kci.go.kr

3. 한국의 조선시대 해제목록과의 목록기술방식 비교[8)]

여기에서는 「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을 한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인 「규장총목」(1781), 「누판고」(1796), 「홍씨독서록」(1810) 등과 비교해 보고 「간명목록」이 이들 해제목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애초에는 「간명목록」이 완성된 1782년 이후에 나온 해제목록인 「누판고」(1796)와 「홍씨독서록」(1810)을 그 비교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규장총목」(1781)의 사부(史部) 목록류(目錄類)에서 이 「간명목록」에 대해 해제를 기술한 점을 볼 때, 「규장총목」 편찬 당시 이미 이 「간명목록」의 편찬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했다고 판단하여 「규장총목」도 그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이들 목록에서 채택한 목록기술방식인 표제표시, 권수표시,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로 구분해서 그 특징적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표제표시

「간명목록」에서 표제표시는 어찬서(御撰書), 어정서(御定書), 흠정서(欽定書)에 대해 '어제(御製)', '어정(御定)', '흠정(欽定)' 등의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고 있으나,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에서는 이들 서적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고 있다.

8) 이 장은 리상용, "「규장총목」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3. 5), 377-388. ; 리상용,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 (2012. 12), 205-220.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108-118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www.kci.go.kr

3.2 권수표시

「간명목록」에서 권수표시는 서지적 의미를 지닌 '권(卷)'으로 표시하였다. 「누판고」와 「홍씨독서록」의 경우 「간명목록」과 마찬가지로 권수의 의미를 동일하게 보았다. 그러나 「규장총목」에서는 '권(卷)'이란 표현 대신 '본(本)'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본(本)'의 경우 서지적 권수가 아닌 물리적인 권수인 책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간명목록」:
戰國策註 三十三卷
新書 十卷

「규장총목」:
四書五經大全 九十本

「누판고」:
四禮問答 四卷

「홍씨독서록」:
韓詩外傳 十卷

3.3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간명목록」에서는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를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누판고」와 「규장총목」에서도 「간명목록」과 같은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홍씨독서록」의 경우 큰 틀에서는 「간명목록」과 같은 방식을 취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그 방식을 달리하였다. 「홍씨독서록」에서는 동일유목(分類項目) 내에서 시대가 바뀔 때에만 그 첫 저록에 한해서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를 하고, 두 번째 이하의 저록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하고 있다.

www.kci.go.kr

예:
「간명목록」:
周禮註疏 四十二卷 漢鄭玄撰 唐賈公彥疏

「규장총목」:
東坡書傳 八本 宋蘇軾撰

「누판고」:
周易本義 十二卷 宋朱子撰

「홍씨독서록」:
樂書 二百卷 宋陳暘之所作也
律呂新書 二卷 蔡元定之所作也

외국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의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저자 앞에 '서양(西洋)'이란 말을 관기하였는데, 「규장총목」의 경우 서양이란 말 외에 '태서(泰西)'란 말도 함께 사용하였다. 「홍씨독서록」에서는 저자명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해제의 내용 가운데 서양인을 지칭할 경우 서인(西人)[9] 또는 서양인(西洋人)[10]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
「간명목록」:
職方外紀 五卷 明西洋艾儒略撰

「규장총목」:
儀象志 十四本 清康熙時 西洋南懷仁撰
記法 一本 明泰西利瑪竇著

이밖에 「간명목록」에서는 목록이 편찬된 시기인 당대(當代) 즉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국조(國朝)'라고 표시한데 비해, 「누판고」와 「홍씨독서록」

9) 洪奭周, 「洪氏讀書錄」 子部 數家.
"幾何原本六卷 徐光啓之所譯也 其書 本西人薩几里得所作 光啓特以中國字譯之耳."
10) 洪奭周, 「洪氏讀書錄」 子部 數家.
"同文籌指十卷 皇明 李之藻之所作也 自西洋人入中國 而曆籌之法大變 是書 亦演其術而作 蓋西洋之學固邪 而其推步之密 則中國所不及也."

www.kci.go.kr

에서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해 저자명 앞에 '본조(本朝)'라고 표시하고 있다.

예:
『간명목록』:
九經誤字 一卷 國朝顧炎武撰

『누판고』:
禮記淺見錄 二十六卷 本朝權近撰

『홍씨독서록』:
麗史提綱 二十卷 本朝 市南兪棨之所作也

3.4 저자명표시

『간명목록』에서의 저자명표시는 대개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규장총목』에서는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또는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누판고』에서는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표시하였으며, 앞에서 한번 나온 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대개 관직명이나 시호를 생략하고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홍씨독서록』의 경우도 대개 저자의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
『간명목록』:
伊雒淵源錄 十四卷 宋朱熹撰

『규장총목』:
農政全書 二十本 明禮部尙書徐光啓著
東坡書傳 八本 宋蘇軾撰

『누판고』:
經書釋義 八卷 本朝議政府左贊成文純公李滉撰
啓蒙傳疑 一卷 本朝李滉撰

『홍씨독서록』:
史記 一百三十卷 漢司馬遷之所作也

www.kci.go.kr

이처럼 조선시대 해제목록의 전반적인 저자명 기입 방식은 전체적인 형식면에서 볼 때 관직명을 붙인 것 외에 「간명목록」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 목록에서는 이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간명목록」의 경우 어제서(御製書), 어정서(御定書), 명찬서(命撰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작에 대해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한데 비해 「규장총목」에서는 '관직명+본관+성명(官職名+本貫+姓名)', '관직명+성+호+명(官職名+姓+號+名)', '본관+성명(本貫+姓名)' 등의 형식으로, 「누판고」의 경우 '관직명+시호+성명(官職名+諡號+姓名)', '관직명+작호+시호+성명(官職名+爵號+諡號+姓名)' 등의 형식으로, 「홍씨독서록」에서는 '호나 시호+성명(號나 諡號+姓名)', '성+호나 시호+명(姓+號나 諡號+名)', '호나 시호+성+선생+명(號나 諡號+姓+先生+名)', '성+관직명+명(姓+官職名+名)', '성+선생+명(姓+先生+名)', '호+성+자(號+姓+子)', '성+씨(姓+氏)' 등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등 그 저자명 표시에 있어서 「간명목록」에서 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
「규장총목」:
官職名+本貫+姓名:
弘簡錄 八十本 明刑部員外郎仁和邵經邦撰

官職名+姓+號+名:
呂東萊集 八本 宋著作郎呂東萊祖謙著

本貫+姓名:
武編 十二本 明武進唐順之撰
太玄經 二本 漢成都揚雄著

「누판고」:
官職名+諡號+姓名:
經書釋義 八卷 本朝議政府左贊成文純公李滉撰

官職名+爵號+諡號+姓名:
懲毖錄 十六卷 本朝議政府領議政兩館大提學豊原府院君文忠公柳成龍撰

www.kci.go.kr

『洪氏讀書錄』:
號나 謚號+姓名:
東賢奏議　卷 本朝文簡公李喜朝之所編也

姓+號나 謚號+名:
書儀 十卷 司馬文正公光之所作也

號나 謚號+姓+先生+名:
喪禮備要一卷 … 沙溪金先生長生所訂定也

姓+官職名+名:
懲毖錄　卷 柳相國成龍之所作也

姓+先生+名:
擊蒙要訣一卷 亦李先生珥所作也

號+姓+子:
程氏易傳四卷 宋伊川程子之所作也

姓+氏:
論語註疏二十卷 孔氏之遺書而魏何晏註宋邢昺疏也

2) 「간명목록」에서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정(御定)', '어주(御註)', '친제(親製)' 등으로 표시하였다. 「규장총목」에서는 대개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제(御製)', '어정(御定)', '친선(親選)' 등으로 표시하였고, 「누판고」에서도 '어찬(御撰)'이라고 표시하여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간명목록」의 기술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
「간명목록」: 상기 2.4의 1) 참조

「규장총목」:
日知薈說三本 清乾隆御撰
歷代君鑑十本 明景泰四年御製
駢字類編一百三十本 清康熙御定

「누판고」:
小學指南二卷 英宗丙戌 御撰

www.kci.go.kr

3) 「간명목록」의 경우 명찬서(命撰書)는 대개 '연호+연차+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다(상기 2.4 저자명표시 예 참조). 「규장총목」에서는 대개 '연호+시 또는 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時 또는 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시+칙 또는 명+관직명+신하명+등+저작역할어(年號+時+勅 또는 命+官職名+臣下名+等+著作役割語)', '묘호 또는 연호+칙+관서명+저작역할어(廟號 또는 年號+勅+官署名+著作役割語)',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입하였으며, 「누판고」에서는 대개 '묘호+간지+관직명+신하명+등+봉교찬(廟號+干支+官職名+臣下名+等+奉敎撰)'의 형식으로 기입하여 이들 목록의 경우, 「간명목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에 비해 「홍씨독서록」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제신+저작역할어(命諸臣+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입하여 그 기술방식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예:
「간명목록」: 상기 2.4의 2) 참조

「규장총목」:

年號＋時 또는 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性理大全二十二本 明永樂時翰林學士胡廣等奉勅撰
歷代名臣奏議五十本 明永樂中黃淮楊士奇等奉勅編

年號＋時＋勅 또는 命＋官職名＋臣下名＋等＋著作役割語
皇輿表二十四本 淸康熙時命翰林學士喇沙里等撰

廟號 또는 年號＋勅＋官署名＋著作役割語
農桑輯要七本 元世祖勅司農司撰進
圖書集成五千二十二本 淸康熙時勅內閣纂輯

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太上感應篇八本 淸翰林編修許纘曾等奉勅撰

www.kci.go.kr

「누판고」:
廟號 + 干支 + 官職名 + 臣下名 + 等 + 奉敎撰
龍飛御天歌十卷 世宗乙丑集賢殿大提學權踶鄭麟趾等奉敎撰

「홍씨독서록」:
命諸臣 + 著作役割語
訓民正音一卷 本朝世宗朝命諸臣所撰也

4) 「간명목록」에서는 불가서적(佛家書籍)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하였다. 「규장총목」에서는 '비구(比丘)' 또는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홍씨독서록」에서도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간명목록」과 약간 다른 글자를 사용한데 비해, 「누판고」에서는 「간명목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
「간명목록」:
筍譜 一卷 宋釋贊寧撰 或作惠崇者誤也

「규장총목」:
楞嚴正解十一本 淸天台比丘靈耀述
地理直指八本 淸四明僧如玉著

「누판고」:
禪門拈頌說話三十卷 高麗釋慧諶撰 本朝釋天隱子說話

「홍씨독서록」:
佛祖通載二十二卷 元僧 念常之所作也

5) 「간명목록」에서 황후의 경우는 '역조명+시호+황후(歷朝名+諡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홍씨독서록」에서도 '역조명+시호+황후(歷朝名+諡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는데 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역조명에 '황명(皇明)'이라고 하고, 저작역할어만 달리 표현하고 있다.

www.kci.go.kr

예:
「간명목록」:
內訓 一卷 明仁孝文皇后撰 或以爲高皇后撰者 誤也

「홍씨독서록」:
內訓一卷 皇明仁孝文皇后之所作也

6) 「간명목록」에서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 부저편집자명씨(不著編輯者名氏), 막지수작(莫知誰作), 찬인명씨무고(撰人名氏無考)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규장총목」에서는 미상찬인성명(未詳撰人姓名), 미상찬인(未詳撰人), 전인편(前人編), 전인저(前人著), 무명씨(亡名氏) 등 다양하게 표기하였고, 「누판고」에서의 경우 부저편인명씨(不著編人名氏),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 편각인미상(編刻人未詳)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홍씨독서록」에서는 그 자리를 빈칸으로 두세 자 띄워 놓았다.

예:
「간명목록」: 상기 2.4의 8) 예 참조.

「규장총목」:
朱子遺書十四本 未詳撰人姓名
古今詩話十本 未詳纂人名氏
治曆緣起八本 未詳撰人
皇明兩朝疏抄十二本 未詳選人
唐詩所 前人編
續近思錄四本 前人輯
讀史漫錄六本 前人著
古文奇賞八十二本 前人選
金丹正理大全十七本 明亡名氏編

「누판고」:
三經四書講義四十九卷 不著編人名氏
捷解蒙語四卷 不著撰人名氏
小學大文卷數俟考 編刻人未詳

「홍씨독서록」:
燃藜室記述 卷 之所作也
朝野會通 卷 之所作也

www.kci.go.kr

3.5 저작역할어표시

『간명목록』의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주(註)', '산정(刪定)', '보주(補注)', '감수(監修)', '소편(所編)', '교정(校定)', '전주(箋註)', '증수(增修)', '평점(評點)', '교보(校補)', '속증(續增)', '속성지(續成之)', '집주(集註)', '산보(刪補)', '속(續)', '설(說)', '소(疏)', '보(補)', '증보(增補)', '증주(增注)', '중증(重增)', '주(注)', '역(譯)', '전(傳)', '전(箋)', '어찬(御撰)', '소기(所記)', '편차지(編次之)'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규장총목』의 경우 '저(著)'와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집(輯)', '중수(重修)', '평(評)', '교(校)', '평선(評選)', '초(抄)', '초(鈔)', '편진(編進)', '술(述)', '유집(類輯)', '선(選)', '편차(編次)', '찬평(纂評)', '소저(所著)', '비평(批評)', '증정(增定)'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누판고』 역시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소편(所編)', '주(註)', '집주(集註)', '보주(補註)', '역(譯)', '해(解)', '소(疏)', '중수(重修)', '중정(重訂)', '소정(所定)', '소편(所編)', '설화(說話)', '직해(直解)', '수정(手定)', '음석(音釋)', '부집(裒輯)', '찬차(撰次)', '록(錄)', '간보(刊補)'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홍씨독서록』에서는 다른 서목과는 달리 '소작야(所作也)', '소편야(所編也)', '소기야(所記也)', '소록야(所錄也)', '소어야(所語也)', '소논술야(所論述也)', '소수야(所授也)', '소찬차야(所撰次也)', '소서차야(所敍次也)', '소산정야(所刪定也)', '소집야(所輯也)', '소집야(所集也)', '소수야(所修也)', '소전야(所傳也)', '소전술야(所傳述也)', '소전야(所箋也)', '소주야(所注也)', '소해야(所解也)', '소정정야(所訂定也)', '소장야(所藏也)', '소반야(所頒也)', '소역야(所譯也)', '지문야(之文也)', '지시야(之詩也)' 등의 서술적 문장형태로 기술한 점이 특이하다.『간명목록』 자부 유가류에 수록된『이정유서(二程遺書)』의 목록기술에서 '程子門人所記而朱子編次之'라고 하여 저자명을 서술형으로 기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www.kci.go.kr

3.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3.6.1 공저자의 목록기술

공저자의 목록기술의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동찬(同撰)이라고 표시한 경우, 역할이 다른 저자표시 사이에 '이(而)'자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규장총목」은 「간명목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고, 「누판고」와 「홍씨독서록」의 경우 글자 상에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간명목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누판고」에서는, 「간명목록」에서 두 저자명 사이에 사용한 '여(與)'자 대신 '급(及)'자를 사용하였고, 「홍씨독서록」에서는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 외에 '도+저작역할어(徒+著作役割語)'를 사용하여 '도(徒)'란 글자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자 외에 '기(暨)'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연결시키는 기입방식을 취하였다.

3.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는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에서도 대개 따르고 있었다.

3.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 「간명목록」

www.kci.go.kr

에서는 저작의 서명과 권수를 각각 표시한 다음에 저자표시를 하였는데,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에서도 대개 이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홍씨독서록」의 경우 저자 앞에 '개(皆)' 자를 관기(冠記)하여 저자표시를 한 점이 특이하다.

4. 결 론

본 논문은 중국 청나라 건륭제 때 편찬된 「사고전서간명목록(四庫全書簡明目錄)」(1782)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의 목록기술방식과 비교하여, 이 「간명목록」이 한국의 조선시대 해제목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명목록」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으며, 각 저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중에 해제와 안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제표시는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제(御製)', '어정(御定)', '어찬(御纂)', '흠정(欽定)' 등의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였다.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인 책수(册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완질(完帙)의 권수표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완질이 아닌 경우 잔존 서적의 권수를 표시하였다.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는 대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였고, 외국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서양(西洋)'이란 말을 관기하였으며, 「간명목록」이 편찬된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국조(國朝)'라고 표시하였으며, 저작의 편찬시대가 불분명한 경우 시대미상(時代未詳), 부저시대(不著時代)라고 하여 아예 그 시대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www.kci.go.kr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어제서(御製書), 어정서(御定書), 명찬서(命撰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작에 대해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정(御定)', '어주(御註)', '친제(親製)' 등으로 표시하였고, 명찬서(命撰書)는 대개 '연호+연차+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황후의 경우는 '역조명+시호+황후(歷朝名+謚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였으며,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원저자의 오류 또는 세간에 전해지는 저자명의 오류를 정정해 준 경우가 있으며,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 부저편집자명씨(不著編輯者名氏), 부저편록자명씨(不著編錄者名氏), 막지수작(莫知誰作), 찬인명씨무고(撰人名氏無考)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주(註)', '산정(刪定)', '보주(補注)', '감수(監修)', '소편(所編)', '교정(校定)', '전주(箋註)', '증수(增修)', '평점(評點)', '교보(校補)', '속증(續增)', '속성지(續成之)', '집주(集註)', '산보(刪補)', '속(續)', '설(說)', '소(疏)', '보(補)', '증보(增補)', '증주(增注)', '중증(重增)', '주(注)', '역(譯)', '전(傳)', '전(箋)', '어찬(御撰)', '소기(所記)', '편차지(編次之)'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첫째,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보면,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www.kci.go.kr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으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동찬(同撰)이라고 표시하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둘째,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셋째,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하고 해제한 경우가 있으며, 그 서적을 각각 해제한 경우도 있다. 넷째,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이나 속집 또는 별집 또는 보유적 성격을 띤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해제를 한 다음에 그 서적의 내용 별로 편저자 표시를 한 경우가 있다. 다섯째, 서적의 원본이 불분명한 경우 원본구일(原本久佚)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원본잔궐(原本殘闕), 구본산일(舊本散佚), 원본와천(原本訛舛), 원본와탈(原本訛脫), 간본찬란실진(刊本竄亂失眞)이란 말을 쓰고, 대본이 된 서적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을 한국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제목록인 「규장총목」(1781), 「누판고」(1796), 「홍씨독서록」(1810) 등과 비교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들 목록에서 채택한 목록기술방식인 표제표시, 권수표시,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로 구분해서 그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제표시를 살펴보면, 「간명목록」에서는 '어제(御製)', '어정(御定)', '흠정(欽定)' 등의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고 있으나,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에서는 이들 서적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았다.

권수표시를 살펴보면, 「간명목록」에서 서지적 의미를 지닌 '권(卷)'으로 표시하였는데, 「누판고」와 「홍씨독서록」의 경우 「간명목록」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규장총목」에서는 '권(卷)'이란 표현 대신 '본(本)'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 또한 서지적 권수가 아닌 물리적인 권수인 책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를 살펴보면, 「간명목록」에서는 저자명 앞에

www.kci.go.kr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는데, 「누판고」와 「규장총목」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홍씨독서록」의 경우 큰 틀에서는 「간명목록」과 같은 방식을 취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그 방식을 달리하였다. 서양인의 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경우 「간명목록」에서는 저자 앞에 '서양(西洋)'이란 말을 관기하였는데, 「규장총목」의 경우 서양이란 말 외에 '태서(泰西)'란 말도 병용하였다. 또한 「간명목록」에서는 목록이 편찬된 당대인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국조(國朝)'라고 표시한데 비해, 「누판고」와 「홍씨독서록」에서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해 저자명 앞에 '본조(本朝)'라고 표시하였다.

저자명표시를 살펴보면, 「간명목록」에서는 주로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는데 「홍씨독서록」의 경우도 대개 이 기술방식을 따랐다. 「규장총목」에서는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또는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누판고」에서는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표시하여, 전반적인 저자명 기입 방식은 전체적인 형식면에서 볼 때 관직명을 붙인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방식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을 표시하였는데, 그 사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명목록」의 경우 어제서(御製書), 명찬서(命撰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작에 대해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한데 비해 「규장총목」과 「누판고」와 「홍씨독서록」에서는 「간명목록」에서 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을 기술하였다.

2) 어찬서(御撰書)는 그 기술방식에 있어서 「간명목록」과 유사했지만, 명찬서(命撰書)의 경우 목록에 따라 「간명목록」과 차이가 있었다. 「규장총목」과 「누판고」의 경우 그 형식이나 표현 면에서 「간명목록」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홍씨독서록」의 경우 그 표현과 형식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3) 「간명목록」에서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에 대해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하였는데, 「누판고」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규장총목」에서는 '비구(比丘)' 또는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홍씨독서록」에서도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

www.kci.go.kr

하였다.

4)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간명목록』과 『누판고』는 어느 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규장총목』은 나름대로 표현을 달리하였으며, 『홍씨독서록』은 그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저작역할어를 살펴보면, 『간명목록』, 『규장총목』, 『누판고』 등에서 '찬(撰)'을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다양한 저작역할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목록과는 달리 『홍씨독서록』의 경우, '소작야(所作也)', '소편야(所編也)' 식의 서술적 문장형태로 기술한 점이 특이하였다.

공저자 기술의 경우, 『규장총목』과 『누판고』에서는 『간명목록』과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는 경우,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 모두 『간명목록』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 역시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에서 주로 『간명목록』의 기술 방식을 따랐는데, 『홍씨독서록』의 경우 저자 앞에 '개(皆)' 자를 관기(冠記)한 점이 특이하였다.

이 『간명목록(簡明目錄)』의 목록기술방식은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등 여러 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통일적인 기술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이 목록기술방식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해제목록과 비교해 본 결과 조선시대에서 목록의 기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목록들이 『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은 대단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의 조선시대에 편찬된 해제목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동민.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 『四庫提要』「經部」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67(2011. 8). 221-250.

金 鎬.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과 그 文化意義.” 「中國文學硏究」 40(2010. 6). 201-223.

당윤희. “청대(淸代) 사고관신(四庫館臣)의 유학(儒學) 사상 고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50(2012. 10). 401-440.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리상용. “「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1(2012. 6). 341-357.

리상용.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2012. 12). 205-220.

리상용. “「규장총목」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2013. 5). 377-388.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硏究.” 「성곡논총」 7(1976). 580-598.

박영순. “「四庫全書總目」 詩文評類 提要의 문학 비평적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32(2005. 6). 427-445.

卞麟錫. “사고전서의 수량적 고찰.” 「史叢」 30(1986. 11). 261-269.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 「동양철학」 35(2011. 7). 99-126.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의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75(2011. 9). 59-86.

永瑢等 撰. 『四庫全書簡明目錄』. 文淵閣原鈔本.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2[1983].

이제우. “淸代 「四庫全書總目」을 통해 본 ‘晩明小品’의 현상과 평가.” 「中國學硏究」 26(2003. 12). 251-273.

鄭石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31-260.

www.kci.go.kr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2012. 12). 111-153.

趙永來.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正史의 『地理志』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의 地理類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2(2012. 9). 155-192.

趙永來. “「사고전서총목」 사부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사지목록의 사부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4(2009. 12). 491-527.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 儒家類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67(2011. 8). 251-28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미경. “「사고전서」의 검색과 활용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2012. 12). 239-269.

胡露, 周錄祥. “四庫全書簡明目錄 淺論.” 「重慶社會科學」 5(2005). 57-65.

韓泰錫. “四庫全書의 活字印刷經緯: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을 中心으로.” 「出版學」 12(1972. 6). 31-36.

홍정희. “筆寫本 永樂大典과 四庫全書의 書誌的 硏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Guy, R. Kent 저. 양휘웅 역.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 나무, 2009.

<http://baike.baidu.com>.

www.kci.go.kr

www.kci.go.kr